

6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충현의 만나

2007

가정예배

민수기 · 로마서

고린도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6

2007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민수기 · 로마서

고린도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 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25개 교구를 통하여 충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 ③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④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선도와 매월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는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⑥ 모든 위원회에 속한 각 부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하나되며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해서 금요찬양집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 ⑦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 되게 하시며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복음을 전하는 중인 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충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시고, 현재 추진중인 양로원, 수양관,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교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신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세워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화평, 자비, 온유 ...

결국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밀알이 되어 전 세계에 보혈로 충만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충현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풍성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성경묵상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지도자들 간에 생긴 불미스러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방 구스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지도권에 도전합니다.(1절) 모세의 행한 일은 죄가 될 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을 제외한 이방 인과의 결혼은 금하지 않았습니다.(출 34:16)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내를 취한 것을 좋지 않게 여겨 비방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이 과연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혈통의 순수성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성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혈통의 순수성만으로 모세의 영적 지도권에 도전했고, 지도자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모세를 변호하시고 미리암과 아론에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므로(롬 13:1,2)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지켜주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입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 된 교회 또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덧입었기에 십자가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종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현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움 받도록 교회의 권위에 늘 순종합시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민 12:1)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십자가 복음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게 될 원인이 된 사건의 전후 사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나산에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마침내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진군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신 1:21)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신 1:26) 가나안땅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었던 그들은 12지파 중에서 1인씩 택하여 정탐을 보냈으며 정탐자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서로 엇갈렸던 것입니다. 정탐자들은 다 같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좋다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12인중 다수인 열 사람의 보고는 불신앙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곳의 강하고 견고한 성읍과 심히 큰 거민을 보고 겁이 난 열 사람의 정탐꾼은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강하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갈렙의 믿음의 보고는 무시되고 묵살되었습니다.(30,31절)

이들 다수가 열거하는 부정적인 보고는 “충현교회를 사랑하며 걱정한다”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나타납니다. 불신앙적인 열 사람의 보고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연기되었듯이 부정적이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더디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산 사면을 세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민 13:31)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선교의 열정과 보혈의 은혜로 가득한 CMTC 1일 수련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의 목전에 당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불신하는 악한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2,3절)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4절)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집요한가를 볼 수 있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들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철저히 부패한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23절) 출애굽 세대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십세 이상의 성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2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유리하는 벌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싫어버린 바 되었습니다.(34절) 하나님의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고후 6:1)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민 14:3)

기도 제목 ①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로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은총으로 충만한 여름 성경학교 교사강습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40년간 광야를 유랑하는 심판을 선고 받은 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장에서 7장 사이에 언급된 율법을 요약해 주는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다시 주신 것은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서도 믿고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본문의 구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1~31절)와 안식일 규례(32~36절),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의 구별됨(37~41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참된 교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러 제사제도 가운데 속죄제의 규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22~31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는 저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저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길이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다 아는 것이라구요?” 지금 즉시 무릎꿇고 엎드리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여 말씀하시고 회개하십시오. “십자가의 흔적을 질그릇 같은 나의 몸에 갖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며 간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온 몸으로 깨닫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민 15:40)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② 모든 교역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라와 그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자적 위치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고라, 르우벤지파의 다단,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아론의 제사장직과 모세의 지도권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호히 심판하심으로써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확고히 하셨습니다.(31~35절) 한편, 고라를 중심으로 반역의 무리가 일어났을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오직 기도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모세의 태도는 이스라엘의 최고통치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4~11절) 이튿날 이스라엘 회중은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했으며, 하나님께서는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염병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이 때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여 급히 향로에 향을 피워 백성들 사이에 서도록 했습니다. 곧 속죄의 향연을 피운 것입니다.(46절)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고 염병은 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기도를 올리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만 반복되고 발전이 없다고 불평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말씀은 자기부인과 순종입니다. 교만하여 철저한 자기부인과 순종을 이루었다고 착각한다면 망령된 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십자가의 공훈을 덧입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이 흐를 때 소름끼치는 전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민 16:19)

기도 제목 ① 주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를 통하여 십자가 복음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라 일당의 반역과 멸망 이후에도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무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확증해 주시려고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막기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주시며, 항상 깨어 있어 인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영적으로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깨우쳐 주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주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새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모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삶의 고통과 아픔의 역경이 우리에게 있어도 아파하고 깨어지면서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 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흔적이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줍니다. 인기와 명예와 공로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채우며 복음 전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아론의 싹 난 지팡이는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 모습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민 17:8)

기도 제목 ① 끝까지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는 아집과 교만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역삼동 일대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아론의 제사장직에 도전한 고라 자손 사건의 연장선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론 가문의 제사장 직무와 일반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명하게 규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레위인들에게 각자 맡은 직분에 대해 죄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1~3절) 맡은 바 일이 크고 중할수록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큼니다. 고라 자손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세속적인 교만으로 제사장 직분을 권력과 명예의 자리로 알고 탐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어떠한 역할이든 성실과 정직함으로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레위인과 합동하여 성막 일을 돌보라고 명하셨습니다.(2,4절)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합동사역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은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7절)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공로나 업적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직분도 우리 자신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우신 것이며 주님의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을 때 교회의 직분은 명예와 자랑과 교만의 자리로 변질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가득차기를 바랍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민 18:4)

기도 제목 ① 나에게 주신 직분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만 쓰임 받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 훈련을 준비하는 중들이 보혈의 은총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자, 시체들로 인해 온 회중이 부정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을 깨끗케 하기 위한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은 정결케 하는 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예식을 일러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에 쓰이는 재를 만들기 위해 암송아지를 태우는데, 암송아지만으로는 속죄제물로써의 기능이 불완전하므로 백향목, 우슬초 등 다른 재료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십니다. 한편, 제물을 불사르고 난 후 생겨난 재는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거하며 정결함을 입기 원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정결케 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충분하였습니다.(10절) 여기서 한가지 교훈하는 것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대인과 이방인,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전인류를 정결케 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죄의 은총을 믿고 사모하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완전하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사역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지 못함을 분명히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영광스런 주님을 뵈는 그 날 까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 밖 정한 곳에 돌찌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민 19:9)

기도 제목 ①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며 보혈의 은총을 덧입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를 통하여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금요찬양 집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출애굽 제 40년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은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였습니다. 이 때는 광야의 유랑기간이 마무리되어 갈 때였습니다. 물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시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12,24절) 이 사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영적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모세와 더불어 율법으로 대표되며 최초의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함은 곧 율법으로써는 어떤 인간도 가나안(천국)에 이를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율법은 단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이며, 예표적으로 주어진 것일 뿐 근본적으로 구원의 수단이 되지는 못합니다.(히 9:9,10) 정녕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엡 2:8)

아론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승계한 뒤 호르산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25,26절) 죄 가운데 태어나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은 그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완전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속죄 사역도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영혼의 기쁨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민 20:10)

기도 제목 ①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대제사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 ② 제2차 침지기 훈련<주제 : 서로 사랑하자 (요일 4:7~11)>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도중에 만난 몇몇 족속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랏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대한 갈망이 커져서 마음이 조급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땅을 우회하여 홍해 쪽으로 멀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뱀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즉시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7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기도에 대해 눅셈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죄인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롬 8:3) 하지만 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셨으며 오히려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즉 눅셈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온전히 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눅셈을 우뚝 세우신 것처럼 험한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길로 그리스도를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요 3:14,15) 눅셈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하며 고집을 피운 사람들이 있듯이 눅셈을 쳐다보면 구원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교만함으로 눅셈을 쳐다보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자기부인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눅셈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만이 영원에 참여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민 21:8)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늘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 아래로 늘 이끌어 주소서. ②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학교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부터 본 서의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 중 최후의 숙영지라 할 수 있는 모압평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2~24장은 이스라엘에 맞서는 이방족속 모압의 왕인 발락이 브돌의 복술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초청하나 하나님께서 직접 발람에게 엄히 경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1~14절) 두 번째로 발락이 돈을 미끼로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15~20절) 세 번째로 발락에게 나아가는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와 심지어 발람이 탄 나귀의 입술을 통해 발람이 추구해 가야 할 사명을 일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21~35절) 마지막으로 발락이 발람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장면(36~41절)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억하는 악한 무리조차도 그의 초월적 능력을 통하여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이러한 초월적 사역을 통해 당신 백성의 구원과 평안을 도모해 가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발락의 신하들이 제시한 물질에 마음이 흔들리는 발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죄악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은 그 유혹을 어떻게 대처하며 이기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됩시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임의로 말할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민 22:38)

기도 제목 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 훈련을 기도로 준비하는 총현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모압족속의 왕 발락의 소원과 정반대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바알신당에 일곱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의 의지와는 달리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의 우월성을 예언하고 자신의 한계에 대해 말합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이스라엘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브올산으로 발람을 데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여기서 보듯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축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의지와 입술의 말까지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12,26절) 우리의 입술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발락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여러번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을 죄 가운데로 향하게 하는 유혹은 없습니까? 죄 중에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22)고 하였습니다. 지금 즉시 자신을 주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고 죄에 익숙한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로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민 23:22)

기도 제목 ① 죄를 회개하며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모든 성도들이 제2차 청지기 훈련을 통해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앞에서는 모압왕 발락이 브돌의 복술가 발람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실패한 사실을 소개했습니다.(22,23장) 이제 이 장에서는 발락이 최후 노력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이 모두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상에 발람을 데려가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나 실패하게 됩니다. 두 차례의 저주 시도(2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靈)에 감동되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하여 발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선언합니다.(1~13절) 이어서 발람은 메시아의 출현과 장차 이스라엘이 그 주변 국가들을 모두 패망시키리라는 사실을 예언합니다.(14~25절) 이렇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발락의 악한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4,8절)을 선포하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17절)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세운 이방인 발람을 도구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신 신비하고 아름다운 장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는 감동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기뻐 뛰노는 것을 느끼십니까? 영원한 창조주의 비밀이 인간으로 내려오신 말구유의 은총을 오늘도 사모하며 온몸 가득 덧입기를 간구하십시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민 24:5)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 절대 확신을 가진 자가 되게 하소서. ② 헌신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을 다짐하는 안수집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거짓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22~24장) 그렇다고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그보다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도전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야영했던 숙영지 싯딤에서 모압여인들과 음행함으로써 그들의 영혼과 육신에 치명적인 범죄를 자행했습니다.(1~5절) 이어 이스라엘의 부패에 분노한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합니다.(6~15절) 뒤이어 이스라엘을 음란케 했던 미디안 족속을 멸망시키라고 모세에게 명하십니다.(16~18절)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혼의 순결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결이 절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타락은 곧 그 영혼과 인격의 타락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의 몸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고후 6:16)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성결과 동시에 육체적 순결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셨습니다.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죄악과 쾌락의 집요한 유혹을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만 내어드리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묘한 모습으로 포장하여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꾀계를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며 매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이겨 냅시다.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부속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 25:3)

기도 제목 ①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기부인과 말씀을 순종하므로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게 하소서. ② 제2차 침지기 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싯딤에서의 음행사건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직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압평지에서 두 번째로 인구를 계수합니다. 이 인구조사는 가데스 바네아 불평사건으로(14장)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구세대 사람들이 죽은 후 신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원할하고 효율적으로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합당한 토지를 분배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 장에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모압평지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된 사실(1~4절)이 소개됩니다. 이어 그 결과에 대한 보고와 인구조사에 근거해 각 지파에게 토지를 공평히 분배하게 한 사실이 소개됩니다.(52~56절) 끝으로 토지분배에서 제외된 레위인 계수에 관한 내용이 소개됩니다.(57~62절) 인구 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의 인구 수가 두 번째 인구조사 결과 이스라엘은 총 601,730명으로 계수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603,550명)보다 불과 1,820명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세대의 멸절이라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한편 신세대 부흥이라는 축복도 함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끝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여정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장정들의 수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어온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민 26:64)

기도 제목 ① 각 교육위원회가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하게 하소서. ② 제2차 청지기 훈련 시 말씀을 증거하는 위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통치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합니다.(1절) 이것은 앞 장에 대한 결론이면서 동시에 1장부터 7장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어 성령을 좇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2~4절) 그리고 과거 육신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의 삶과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사는 삶을 서로 대조시키면서, 성도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12,13절) 이와 같은 삶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 합니다. 오직 성도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거나 고난이 닥쳐올 때 매순간 성령께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1절) 라고 선언하는 말씀을 읽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외치며 전하고 싶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35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39절) 우리가 무엇이길래! 가슴이 벅차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을 전하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롬 8:2)

기도 제목 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소서. ② 외선부에 출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슬픔을 토로합니다.(1~3절) 이는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멸망 받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선택받았고 언약과 율법을 얻는 특권을 누렸습니다.(4절)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그릇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였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많은 특권을 누리면서도 오히려 불의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고 실제로는 교만과 편견이 가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약속의 자녀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의 그릇된 생각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6~13절)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만이 진정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내가 궁핍히 여길 자를 궁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15절)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오직 구원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 9:8)

기도 제목 ① 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모든 청지기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를 세우는 길과,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을 서로 비교하여 제시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 하는 자는 인간적인 의를 세우는 자입니다.(3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입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는 자만이 의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강조합니다.(9,10절)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3절)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충족시키시며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한지 느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의는 원자 폭탄과 같이 단단하고 강합니다. “교만함과 자랑과 자기 의를 가루로 만들라.”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잘 포장된 의와 교만과 자랑과 공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깨뜨리고 가루로 만드십시오, 그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롬 10:10)

기도 제목 ① 겸손한 척하는 마음과 우리의 의(義)와 자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루로 만들어 주소서. ② 위임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이 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섭리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현재 하나님의 구속역사가 이방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경되지 않으며 구속사가 종결되는 그날에 최종 성취될 것이라고 말합니다.(25~27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짙은 암흑기 속에서도 항상 당신의 택하신 남은 자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야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엘리야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남겨 두시어 구원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남은 자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우리를 남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은 자를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요 19:25)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은총의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이름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살로메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막달라 마리아로 남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살로메로 남기 원합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롬 11:4)

기도 제목 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②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말문을 열면서 거룩한 삶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해 놓은 십자가 복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합니다.(1절) 그것은 오직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믿는 사람만이 참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한 삶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의 십자가 복음을 깊이 있게 강론하고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거룩하게 하는 근본적인 능력은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바울은 거룩한 삶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1절) 거룩한 삶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나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십자가만 커지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달아 모든 삶을 산 제사로 드리게 하소서. ②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1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국가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지만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장에서 바울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8절)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사랑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무조건 갚아야 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차별없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처럼 참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비롯된 순종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롬 13:1)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게 하사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② 단기선교와 모든 선교훈련이 성령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이 장이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명확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의 시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또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등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판단하고 행해야 할 문제들인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와 다른 견해를 취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비난했습니다.(1절)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4,10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흔히 들어왔던 “신앙양심에 따라 판단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자기 의(義)와 자기 노력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양심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8절)는 말씀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형제들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연약한 지체일지라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은 자기 의(義)로 가득한 교만함과 십자가의 은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밖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롬 14:7)

기도 제목 ①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형제들과 화평하며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되게 하소서. ② 각 위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총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이 장에서 자신의 복음 전도사역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18절)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업적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만 자랑”(17절)했습니다. 신자나 교회가 자랑해야 할 내용은 크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 교인수, 선교사역의 규모 등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나, 그 어디에서도 충현교회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며 남기를 원합니다.

이 장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8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서를 인용하여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12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을 빌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변증(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16절)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19절)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만 편만하게 전하는 길을 걷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이 길을 걸을 수 없기에 오늘도 피문은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문은 예수님의 손을 놓지말고 꼭 잡으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롬 15:6)

기도 제목 ① 오늘도 세계 전역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소서. ② 양로원 · 수양관 · 납골시설 및 본당 외벽석재 보수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로마서를 끝내면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다정하게 문안 인사를 건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이 매우 친밀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형제들과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수고해야 합니다. 한편,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지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17절) 복음을 위해 수고할 때 복음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며 공교한 말로 마음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19절) 사람들의 휘방으로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기”(20절)를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25~27절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자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복음이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비밀의 계시”(25,26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며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찌어다”(27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인 예수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찌어다 아멘”(롬 16:27)

기도 제목 ① 총현교회 모든 단기 선교팀원들이 순종하며 섬김으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② 학습·세례자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학습·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바울은 글로에의 집 사람으로부터 고린도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린도교회는 여러 파별로 나뉘어 분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린도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좇지 않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취향에 맞는 특정 지도자들에게 집착하며 그들을 좇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13절)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분파주의와 분쟁을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세례 또한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오직 구원의 능력은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에서부터 분열이 생김을 지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고합니다.

성도들이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앞세울 때, 당을 짓게 되고 분쟁과 분열에 빠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십자가의 도”(18절)를 내세웁니다. 우리에게도 자랑과 공로를 내세우며 시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걷기 보다는 교회 안에서 명예를 붙들고 높이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②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심령에 보혈의 은총을 가득 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사 감추어 두신 것이며, 죄악된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역사성’과 ‘비밀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시고,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순결하며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지혜”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간구하여 알게 되는 삶이나 지식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 곧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신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영을 받음(12절)으로 알게 되며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14절)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서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십자가는 은총이며 영원한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오신 신비한 비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고전 2:4)

기도 제목 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각각 특정 사역자를 추종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추종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추종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추종했습니다.(4,22절) 바울은 그들의 이런 분파를 엄히 책망하며, 교회 안에서는 절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21절)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들에게 마땅히 돌려야 할 존경과 사랑까지 금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사역자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인간적으로 자랑하는 행동,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을 상대적으로 소외하는 등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행동을 금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사역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임명을 받아 일하는 일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5~9절) 바울은 자기 자신과 아볼로를 ‘심는 자’와 ‘물 주는 이’에 비유하면서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7절) 즉, 교회에 유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 지혜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며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하시므로(19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21~23절)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 3:21)

기도 제목 ① 교회의 일꾼들을 합당하게 존경하고 사랑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② 권사회에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며, 소외된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복음의 사역자들을 과대 평가하여 그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것도 잘못이지만, 복음의 사역자들을 과소 평가하여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역시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1절) 은총의 통로로 쓰임 받는 복음의 사역자들의 직분을 존중해야 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4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5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바울은 중대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6절) 즉,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서서 복음의 사역자들을 인간적인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혈의 은총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비판하며 사역자들을 판단하는 자리에는 결단코 한 걸음도 함께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판단하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전 4:1)

기도 제목 ① 복음의 사역자들을 우리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과 총현복지관이 복음으로 견고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 안에는 파벌(派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행(淫行)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음행을 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는 가슴아파하며 한탄하지 않고 계속 침묵을 지켰고 오히려 자신들의 그런 관용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1,2절)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범죄한 당사자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권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5절) 즉, 권징은 범죄자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권징은 교회 공동체를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6~8절) 왜냐하면 죄는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7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월절 식사를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강조합니다. 바울의 말인즉, 유월절 희생 양을 먹을 때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요 6:55) 영생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7,8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성도의 삶에는 거룩과 순결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순결한 삶의 동기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어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전 5:7)

기도 제목 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주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천국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교인 상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2절) 이 세상은 아무리 지혜로운 듯 보여도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하며 장차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교인 상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처사요 책망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경건하고 지혜로우며 성숙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5절)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속는다 해도 교인 상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7절)

한편, 1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며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13절) 둘째, 우리의 몸은 장차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14절) 셋째,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15절) 넷째,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18절) 다섯째,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20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순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하여 달라고 엎드려 기도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20)

기도 제목 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②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을 통하여 십자가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 제목

구역예배교재

6월 구역교재 초점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교회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그리스도의 교회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며,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전적으로 성령께 순종하며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초대 교회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됩시다.

금요모임	본 문	제 목	초 점
0601	갈 5:22,23	화 평	화평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 예수님께 순종하자
0608	갈 5:22	자 비	자비로 가득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자
0615	갈 5:23	온 유	온유로 가득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0622	행 8:1~4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하자

1. 구역 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2. 구역 교재 전개

도 입

전 개

적 용

마음으로 路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소요시간 10분

말씀으로 路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십자가로 路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1과 화 평

| 초 점 |

화평으로 가득한 삶을 통해 예수님께 순종하자

| 찬 송 |

찬송가 468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본 문 | 갈라디아서 5:22,23

☞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맺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갈 5:22,23

성령의 열매와 인간의 업적은 상반됩니다. 인간의 업적은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뜻에 따라 자라갑니다.

※ 자신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맺어 주시기를 가장 원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화평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경건생활 속에 하나님의 화평을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종류의 화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화평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성령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십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롬 5:1 / 그러므로 우리가 _____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_____

죄는 에덴동산에서 누렸던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세상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 술이나 담배, 마리화나와 코카인 같은 약물, 경제적인 안정 등을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허황된 것입니다.

사 57:20,21 / 오직 악인은 능히 ☐☐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하는 ☐☐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이 없다 하셨느니라

성경은 하나님 없이는 화평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근원이십니다.

엡 2:14,15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일이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은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주장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지라도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주시는 성령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화평케 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후 3:16 / □□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에게 □□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찌어다

하나님의 화평은 모든 상황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들 앞에서 항상 절망하며, 절규하고,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빌 4:6,7 /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_____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_____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_____

하나님의 화평은 진짜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는 모든 핍박과 두려움 심지어 죽음마저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행의 크고 작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사람들과 화평케 하시는 성령

성령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행 1:14

히 12:14

성령은 신자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무너뜨리십니다. 성령 안에서 연합이 화평의 열쇠입니다. 이것은 부흥이 일어날 때면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행 2:1 /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가 다같이 에 모였더니

행 4:31 / 빌기를 다함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의 을 전하니라

성령은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화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다른 사람과 화평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해서선 안 됩니다.

엡 4:30,31 / _____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
까지 _____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 최근에 자신의 삶에서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일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성령께 대항하거나 거역하는 일을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성령의 목소리에 민감해지십시오. 그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내어 드리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하게 하소서.
3. 화평케 하시는 성령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2과 자 비

| 초 점 |

자비로 가득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자

| 찬 송 |

찬송가 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찬송가 32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 본 문 | 갈라디아서 5: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
비와 양선과 충성과

하나님이신 성령은 그리스도인 개개인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결코 근심케 하거나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엡 4:30

살전 5:19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란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가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시들게 만듭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썩게 만듭니다. 이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갈 5:16 /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의 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성령을 의존하며 걸어가는 신자들 심령 속에 그분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자비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자비

자비는 하나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느 9:17 / ... 오직 주는 _____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_____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 31:21 / _____ 견고한 성에서 _____
내게 보이셨음이라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했습니다. 이사야도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시 103:4

사 54:8

하나님의 자비는 풍성하고, 놀랍고, 자애롭고, 위대하며, 영원합니다. 그분의 자비가 우리를 감동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자비가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자비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엡 4:32 / 서로 □□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심과 같이 하라

롬 12:10 / 형제를 □□하여 서로 □□하고 □□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신자의 말에 큰 영향을 주는 자비

자비는 신자의 말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교만이나 탐욕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지만 자비로운 말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약 3:2 /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_____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약 3:10 / _____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혀를 잘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내뱉은 거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거친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치명적인 해를 끼칩니다. 반면에 자비로운 말은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자비로운 말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변화시킵니다. 자비로운 말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자비로운 말이 나오니까?

※ 다른 사람의 자비로운 말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사랑을 나누게 하는 자비

자비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마 5:42

초대 교회는 이러한 방법으로 놀라운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유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행 2:44,45 / 믿는 사람이 다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를 따라 나눠 주고

고전 16:1 / 성도를 위하는 에 대하여는 내가 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경은 주는 일에 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한 컵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크고 작은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막 9:41 /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_____
_____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기심은 우리가 얼마나 욕에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자비는 주님께 대한 우리의 복종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발견합니까? 여러분은 친구나 이웃, 동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과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갈 5:22

골 3:12

성령의 목적은 우리 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교만을 보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보는지 살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 간절한 기도 |

1.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자비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하소서
2. 총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치 않게 하여 주소서
3. 자비로 가득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3과 온 유

| 초 점 |

온유로 가득한 삶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자

| 찬 송 |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31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 본 문 | 갈라디아서 5: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음 받은 성품으로 부드럽고, 겸손하며, 유순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유함을 연약하고 나약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많은 훈련을 쌓아야만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온유는 사람의 품성 가운데 최고 정점입니다.

※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어떤 종교 관원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렸을 때 예수님은 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를 뒤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온유함은 영혼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마 27:12

온유는 오래 참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실천하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며, 오랜 시간이 흘러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령에 의한 온유함은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 배우는 온유

신자는 예수님에 의해 온유해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 11:29 / 나는 _____ 나의 멍에를 메고 _____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교만은 사라지고 반항적인 성질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거친 태도는 온유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은 겸손한 마음을 기초로 자랍니다. 경건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온유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약 1:21 /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할 바 마음에 심긴 를 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 11:28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
시든지 “네, 주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온유
함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
동해야 합니다.

갈 6:1 /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_____ 신령한 너희는
_____ 네 자신을 돌아보아 _____
두려워하라

엡 4:2,3 / _____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_____ 힘써 지키라

지도자에게 필요한 온유

신자는 온유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온유는 회개를 낳고, 진리를 깨
닫게 하며, 사탄의 울무에서 해방시킵니다.

딤후 2:25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병든
영혼을 치유합니다. 반면에 다툼은 적대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딤후 3:2 /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하며 범사에 ☐함을 ☐
☐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민 12:3 / 이 사람 모세는 ☐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하더라

모세는 온유와 겸손을 겸비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폭군이 아닌 겸손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악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요새와 같이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최상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의 위대함과 온유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깨닫는 온유

신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 1:29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지도자가 되는 비결은 부, 건강,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들은 온순하고, 너그럽고, 겸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배웁니다.

마 26:39 / ...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_____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_____

예수님은 전통이나 방법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함의 온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온유한 심령을 귀히 여기십니다. 온유해 지십시오. 온유한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벧전 3:4 /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하고 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앞에 값진 것이니라

히 12:2 /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은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 가지 않을 때 화가 납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온유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총현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소서
2.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4과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 초 점 |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을 전하자

| 찬 송 |

찬송가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본 문 | 사도행전 8:1~4

①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흠어지니라 ②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③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④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후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흠어지면 전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각지로 흠으셨습니다.

행 8:1 /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에 큰 □□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으로 흠어지니라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일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아니면 논쟁하고 다투며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살던 곳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인간됨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시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전도를 귀히 보십니다.

행 2:46

딤후 4:2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박해로 흩어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노하거나 처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행 11:19,20 /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_____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_____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_____
_____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온갖 박해와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집을 잃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몸을 피해 달아난 그 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변함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행 8:4

복음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사마리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렀고 온 성은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당하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최고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지는 오직 성령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행 8:5 /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를 백성에게 하니

행 8:8 / 그 성에 이 있더라

순전한 믿음을 가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흠어지게 된 것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행 8:3 / 사울이 _____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_____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힘들게 하면 불평하기 마련인데 초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쓰거나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생명을 잃는 것에 대해 비난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판이 현대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장본인입니다.

딤후 3:12

비판은 신자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혀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행 1:8 / 오직 _____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_____ 하시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적을 격파하기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로마로 진출하려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대항도, 정치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 22:21 / 가로되 _____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_____의 것은 _____에게, _____의 것은 _____께 바치라

요 18:36 / 내 _____는 이 _____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_____가 이 _____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_____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역사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맞바꿨던 모든 교회들은 무서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흠어졌을 때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행 4:12 / _____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_____ 하였더라

막 16:15 / 또 가라사대 너희는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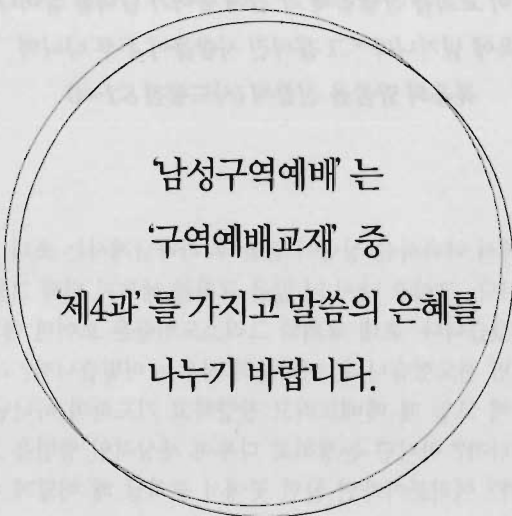
※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신의 각오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심한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나서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 간절한 기도 |

1. 초대 교회 성도들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2.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는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소서.
3.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흠어지면 전도하는 구역원들이 되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교재’ 중
‘제4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흠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들

⁽¹⁾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흠어지니라

⁽²⁾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³⁾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⁴⁾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1~4)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후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들을 각지로 흠으셨습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예배드리고 흠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일 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까? 아니면 논쟁하고 다투며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답습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살던 곳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도하시겠습니까?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와 전도를 귀히 보십니다.

박해로 흩어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질 때 분노하거나 처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집을 잃고,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세상적으로 미래가 암담한 상황에서 불평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박해와 고통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예수님을 위해서 전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증오를 사랑으로 갚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투옥되거나 순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을 피해 달아난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들을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장서서 그들을 박해하던 사울조차 그들의 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줄곧 자신이 옳은 일을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행 8:1)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사마리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렀고 온 성은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행 8:8)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당하고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온 세상에 최고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는지는 오직 성령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믿음을 가진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흠어지게 된 것을 분석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힘들게 하면 불평하기 마련인데 초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상황에 대처하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술수를 쓰거나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생명을 잃는 것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은 현대 교회를 무능력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비판은 신자들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매우 많은 교인들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분석적인 사고를 발휘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전혀 정반대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적을 격파하기 위해 전문적인 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전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한 사람씩 차례로 세상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고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며 로마로 진출하려는 욕망도 없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대항도, 정치적인 주장도 없었습니다. 반면에 역사상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과 맞바꿨던 모든 교회들은 무서운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여전히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가이살)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

치라”(마 22:21) 기독교와 정치를 혼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결단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흠어졌을 때 전도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신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향이 아닌 다른 낯선 곳으로 흠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직하게 고백해보십시오.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탄에 젖거나, 비판하거나, 정치와 손잡겠습니까? 이제,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심한 핍박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더 쉬워졌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분은 몇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까? 다음 주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나서게 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순서

찬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낭독		
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2007년 6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광현

집필진 | 양재웅 유재진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3200) 판매처